

청년들 산사서 9일 행자...삶의 응어리 풀다

조계종 교육원 '청년출가학교' 미항사에서 7월 9일 회향

“경쟁구도, 스펙, 시험 때문에 한 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항상 내 마음은 지쳐있었다.”(천예지)

“마음에 돌덩어리가 가득 쌓여있었다. 지금까지 행복해 보이는 게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살았다. 주위 사람들 모두 기만을 쓴 것 같아 인간관계도 힘들었다.”(이중찬)

해남 미항사 자하루에 41명의 옛날 청년들이 모였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음)은 20대 청년들을 위한 '청년출가학교'를 7월 1~9일 진행했다. 8박 9일 일정을 모두 마친 지난 9일, 회향의 자리는 눈물바다였다. 성별, 종교, 직업도 모두 다른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아꼈던 자신의 모습을 털어냈다.

교육원이 무료로 처음 실시한 '청년출가학교'에는 지원자만 272명이 몰릴 정도로 개설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번 출가학교에는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남자 19명, 여자 22명, 총 41명의 청년들이 선발됐다.

선발기준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이들에게 이득 되는 삶이란 무엇인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정한 원하는 일인가'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등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을 자기소개서에 진솔하게 작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려 뽑았다.

김성동 교육원 팀장은 "272명의 고민들이 거의 비슷했다. 자기소개서에 좀 더 진정성이 느껴지고, 청년출가학교를 통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청년들을 우선 선발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 선발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만큼 요즘은 청년들이 많이 아파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청년출가학교에 선발된 참가자들은 입산 후부터 하산까지 '행자'라 불리며, 스님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다. 입산 후 핸드폰과 지갑 등 출가기간동안 불필요한 물품들은 모두 반납하고, 머리리카락도 조금씩 잘라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에 넣고 항아리에 담아 불전에 올렸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새벽예불을 하고, 108배, 참선, 요가, 율령 등을 통해 속세에서 쌓인 번뇌와 습기(習氣)를 내려놓고 오로지 행자로서의 생활에만 집중했다.

특히 이번 출가학교에는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美 뉴햄프셔대 교수 헤민 스님 등을 비롯해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고미숙 고전평론가 등 불교계 내로라하는 스님과 학자들이 출가학교 강사진으로 나서 참가자들의 호응이 더욱 컸다.

강사진들은 1일 동안 참가자들에게 강의

와 즉문즉답을 나누는 법담시간을 가졌다. 도법 스님은 자신의 출가과정을 비롯해 존재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은 "불교는 다양한 역사의 흐름을 갖고 있지만 일관되게 추구했던 사실은 존재가치에 눈을 뜨는 일이다"며 "행자들이 저마다의 아픔을 해결하려면 스스로 존귀함을 알고 존재가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민 스님은 "남들이 말하는 잣대에 '나'의 가치를 함부로 매기지 말라. 본인의 가치는 스스로 매겨야 한다. 누구든지 고유의 빛깔과 향기가 있다. 그것을 바로 알고 찾아가야 한다. 자신이 재밌고 의미있는 일을 하다보면 '나만의 스타일'이 나온다. 남만 좇다보면 아무에 그친다"고 조언했다.

조성택 교수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불교를 설명하며, 불교 교리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교수는 "교리공부를 많이 한다고 불교를 많이 아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교의 감수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밖에 교육원 교육부장 범인 스님(청년출가학교교장),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 교수 아사리 원영 스님이 출가학교 지도법사로 나서 매일 24시간 동안 참가자와 동거동



조계종 교육원은 '청년출가학교'를 7월 1~9일 해남 미항사에서 열었다. 참가자들은 '행자'라 불리며, 스님들과 같은 생활을 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저녁 예불 후 포행하는 모습

272명 중 41명 선발해 '행자' 처럼 9일간 생활 핸드폰 반납 머리도 잘라 새벽 예불, 108배, 사경...

락(同居同樂)하며, 차담·상담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아픔을 위로했다.

추교성(23)군은 "프로그램을 통해 출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 부정적인 사고에서 탈피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출가라 생각했다.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듯, 내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3년 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조승

도법·헤민 등 스님 스타 "자신의 존재가치에 논쁘세요" 참가자들 '깨어있는 삶 체험' 조계종 "청년 멘토로 나서겠다"

아(27)씨는 "고등학교때는 좋은 대학에 가면 됐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취직해 보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목표를 잃은 느낌이었다. 스님들을 만나고 보니 나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정말 값진 경험을 한 것 같다. 앞으로 좀 더 통찰력을 갖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가톨릭 신자였던 임정규(28)씨는 "내 꿈은 신부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출

가학교를 통해 진리는 삶의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회향이라는 것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강 스님은 "참가자들이 앞으로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길 바란다. 8박 9일간의 일정이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생각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생활출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영 스님은 "참가자들은 대부분 학교, 사회 등에서 인간관계 문제를 가장 힘들어 했다. 프로그램 개설 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막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더욱 유익할 것인지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청년출가학교' 교장으로 참가자

들의 지도법사로 나선 교육부장 범인 스님은 "종단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정말 무심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현재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진정한 멘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범인 스님은 "출가'란 단순히 삭발하고 승복을 입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태도와 생각을 버리고 자유와 평화,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출가'라며 "이제 불교가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이다. 종교를 떠나 '청년출가학교'를 청년을 위한 멘토링 사업으로 장기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원은 "이번 청년출가학교 참가자 중 현재 1명이 출가했으며, 2명이 출가를 앞두고 있다. 또 3명이 출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해남 미항사=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미항사에서 스님들과 낙조를 바라보는 출가학교 참가자들



"출가는 기존의 낡은 틀과 묶은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는 누구나 해야 합니다. 불교가 시대의 교사로서 늦었지만 청년 멘토로 나서겠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몰 때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자신의 행복을 맞추려 들지 마세요."



"교리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불교를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교의 감수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화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강 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태,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이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 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